

일소당 음악회

서울돈화문국악당 10주년

2026.2.4 - 2.14
수 19:30 • 토 17:00
서울돈화문국악당

익소당 음악회

서로 다른 삶들이 이야기와 음악으로
무대 위에 나란히 놓이는 시간
서울돈화문국악당 < 일소당 음악회 >

조선시대 국악인들의 발길이 머물렀던 국악로.
전통예술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그 자리에서
명인들의 삶과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긴 세월을 지나며 빚어진 이야기 위로 펼쳐지는
한 사람의 삶을 따라 흐르는 한 장르의 역사.

전통을 지켜온 이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2.4.(수) 19:30

서울시무형유산 아쟁산조 이수자
이태백

2.7.(토) 17:00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

2.11.(수) 19:30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
이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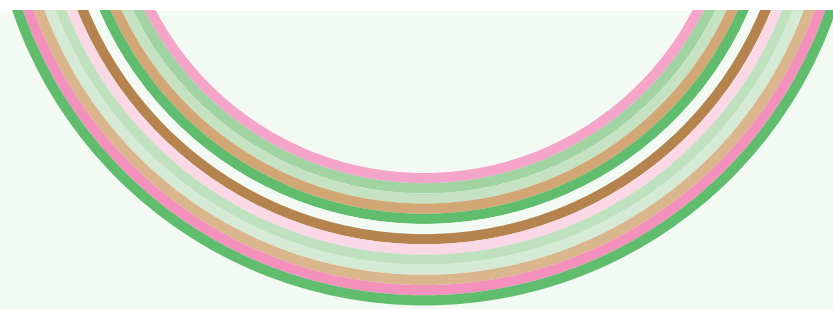
2.14.(토) 17:30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

예술감독 송현민

역대 출연진

연도	분야	성함	비고
2025	범패	동희스님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일무	김영숙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일무) 전승교육사
	판소리	김수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수궁가) 보유자
	무속음악	이수자	전라남도 무형유산 해남 씨김굿 보유자
2024	가곡	김경배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서도소리	유지숙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가야금	지성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승무	채상목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2023	정가	이동규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피리	최경만	서울시무형유산 삼현육각 예능보유자
	서도소리	김광숙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고법	김청만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2022	가야금	최충웅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아쟁	김영길	서울시무형유산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
	거문고	김무길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전승교육사
	정가	김영기	국가무형유산 가곡 예능보유자
	피리	한세현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대취타 이수자
	대금	원장현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2026.2.4.(수) 19:30

소리의 ‘뿌리’, 아쟁의 ‘줄기’로 꽃피운 60년

이태백

이태백은 서울시무형유산 아쟁산조 이수자로, 국내 최초의 아쟁 전공자이자 아쟁 박사 1호이다. 아쟁을 비롯해 고법, 진도씻김굿, 판소리 등 다방면의 무형유산을 습득한 우리나라 대표 예인인 그는 전라남도 진도의 소리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남도 음악을 접해왔다. 스승 박종선·김일구의 가르침 아래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문 장원, 해남전국고수대회 명고수부 대상,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상을 수상하였고 목원대 교수로 재직하며 연주와 교육 활동을 함께 이어왔다. 특별히 이번 무대에서는 예술인생 60주년을 맞이해 장르를 넘나들며 축적해 온 음악적 성과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이태백류 아쟁산조

박종선·김일구 명인에게 이어받은 산조에 이태백 만의 음악적 해석을 더해 정립한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진양부터 자진모리까지 다양한 장단으로 구성된다.
2021년 4월, 서울돈화문국악당에서 발표를 시작으로 기존 유파의 경계를 넘어 각 산조가 지닌 매력을 아우른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육자백이(진도가) 흥타령

육자백이(진도가) 흥타령은 진도 출신 이태백이 연륜이 쌓인 후 고향으로 가는 예술 여정을 그린 소리로 인생을 돌아보며 작곡한 노래이다.

구음시나위 푸리

푸리는 아쟁 시나위 가락을 바탕으로 장단을 넘나드는 즉흥적 흐름 속에서 대금의 가락에 구음이 어우러지며 남도의 깊은 정서를 전한다.

아쟁

장구

작사·곡

소리

장구·소리

철가야금

대금

아쟁

대금

장구·구음

정·구음

이태백

임현빈

이태백

김나영

임현빈

이태백

원완철

이태백

원완철

임현빈

김나영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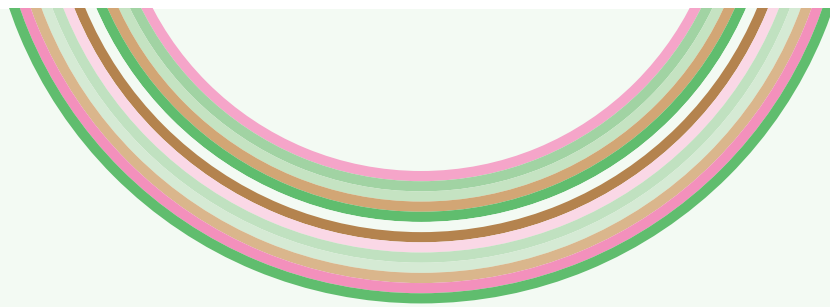
장구 | 임현빈 남원시립국악단 악장



소리 | 김나영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이수자



대금 | 원완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



2026.2.7.(토) 17:00

손끝에 '지문'처럼 남은, 가야금의 시간과 순간들

문재숙

문재숙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가야금을 전공하던 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가야금을 접했고, 취미로 시작한 연주를 계기로 가야금의 길에 들어섰다. 대학교 3학년 때 김죽파 명인을 만나 17년간 스승으로 모시며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와 풍류, 병창 등을 온전히 전수받았으며 가야금산조를 처음으로 녹음하는 등 국내외에 가야금 전통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로서의 위상 너머, 한 사람의 연주자로서 걸어온 삶과 음악을 통해 인간 문재숙의 면모를 진솔하게 보여준다.



프로그램

죽파제 문재속전승 짧은 풍류 中 다스름, 하현, 타령, 군악	김죽파 명인에게 풍류 전 바탕을 사사한 유일한 제자인 송향 문재속은 이를 채보하여 출판하고 음반을 발매하는 등 선생의 고고한 음악세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송죽松竹전승 민간풍류는 김창조, 한성기, 김죽파, 문재속으로 전승되는 풍류이며, 범금으로 연주되는 정악과 달리 산조가야금으로 연주한다.	가야금 장구	문재속 이슬기 김성민 이가빈 조봉국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연주되고 있는 산조 중 하나인 김죽파 가야금산조는 흔히 ‘곰삭은 곰국맛’에 비유된다. 이러한 김죽파 명인의 깊은 맛은 그의 5괘 조현법에서 나오는 웅성있는 저음과 다양한 조 변화, 다채로운 성음 놀음들이 어우러져서 나온다. 남자에게서 나온 가락이지만 오랜 세월 여성인 김죽파에 의하여 새롭게 다듬어지고, 짜여지고, 구성되어 섬세하고 농현이 정교하다. 또한 계면조에 강산제 농현을 가미하여 일부 계면조 가락에 슬픈 느낌보다는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가야금 장구	문재속 이슬기 김성민 이가빈 조봉국
가야금병창 춘향가 中 사랑가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사랑가>는 판소리 <춘향가>의 사랑가 대목을 따로 떼어내어 별도로 판을 짠 가야금병창 곡목 중 하나로 느린 진양조로 시작하여 중모리와 중중모리로 점차 빨라지는 장단 구조로 되어있다. 점차 고조되는 이야기의 극적인 흐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잘 짜여진 소리 대목이다.	북 가야금 장구	문재속 이슬기 김성민 이가빈 조봉국
사랑의 꿈 Ⅱ	<사랑의 꿈>은 인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다. 문재속 기획 및 작사로 라틴댄스 중 룸바에 맞춰 국악기의 반주로 새롭게 편곡한 곡이다. <사랑의 꿈> 작품은 I~Ⅲ의 시리즈로 발표되었지만 오늘 무대에서는 <사랑의 꿈Ⅱ>가 연주된다.	라틴댄스 뎃과리	문재속 김대동 조봉국

출연진



가야금 | 이슬기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MACAU 과학기술대학교 초빙 교수



가야금 | 김성민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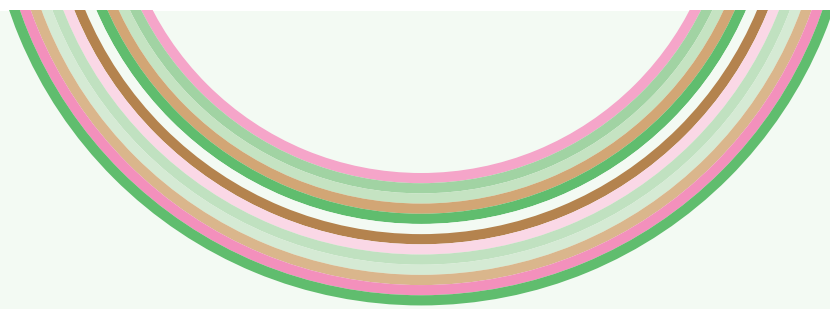
가야금 | 이가빈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타악 | 조봉국 제26회 청강 정철호 국악제 명인부 고법 최우수상



댄스스포츠 | 김대동 광저우 아시안게임 댄스스포츠 국가대표



2026.2.11.(수) 19:30

거문고와 함께 해온 ‘성실’한 전통 쌓기와 ‘절실’한 변화

이재화

이재화는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로, 초등학교 재학 당시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국악사 양성소에 입학하였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대금을 전공하다가 고등학교 진학 후 다른 학생들보다 1년 늦게 거문고를 시작하였으나 남다른 노력과 탁월한 성실함을 통해 기량을 완성하며 백낙준에서 한갑득으로 전승된 거문고산조의 정통을 계승하는 명인으로서의 길을 확립하였다. 거문고의 음역과 음향을 확장하기 위해 현을 늘려 개량한 화현금을 선보였으며 추계예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썼다. 이번 공연에서는 거문고 외길을 걸으며 이어온 음악적 탐구를 바탕으로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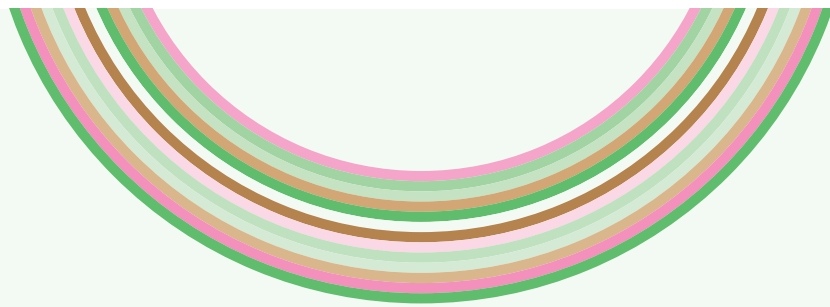
프로그램

우조다스름과 하현도드리	한갑득 명인의 조율과 성음에 기반한 이재화의 독창적 풍류세계를 엿볼 수 있다.	거문고	이재화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한갑득 명인은 대대로 음악 명문가 출신으로서 “눈만 꿈쩍여도 가락을 만들어 내는 한갑득”이라는 판소리 사설이 있을 정도로 산조 역사상 가장 방대한 가락을 만들어낸 불세출의 거장이다. 깊고 단아하고 생동감있고 자연스러움이 특징이다.	거문고 장단	이재화 이경섭
김용실의 방아타령과 박연폭포 변주곡	북한의 거문고 음악은 1960년대 초까지 활발하게 작곡되어 독주곡 10여 곡이 악보화 되었으나 현재 거문고는 보존차원에만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중 방아타령은 김용실이 수성으로 독주한 음원에 의한 것이고 박연폭포는 1964년에 변주곡으로 편곡한 악보에 의한 것이다.	거문고 장단	이재화 이경섭
이재화류 자진모리	바다가 세상 모든 강물을 바닷물로 수용하듯이 산조의 위대함의 하나는 모든 가락을 포용할 수 있는 열린음악이라는 점일 것이다. 거문고의 정체성에 충실하여 현대미를 가미한 새로운 음향 창출이 이재화류가 지향하는 바다. 특히 폭풍을 연상시키는 자진모리 음향이 특별하다.	거문고 장단	이재화 이경섭

출연진



타악 | 이경섭 이경섭장단컴퍼니'드락' 대표



2026.2.14.(토) 17:30

시대와 사람, 변화를 담아온 ‘소리의 큰 그릇’

이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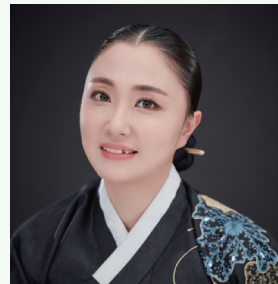
이춘희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로 민요의 교과서라 불리는 대표적인 명창이다. 어린 시절 라디오를 통해 접한 음악을 계기로 소리에 뜻을 두었으나 집안의 반대로 시작하지 못하였고, 까닭 모를 병을 앓은 후에야 허락을 받아 열일곱 살에 본격적으로 소리의 길에 들어섰다. 이창배 명인 문하에서 민요를 시작한 뒤 이후 안비취 명인을 만나 소리의 깊이를 확장해 나갔으며 예술과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비가 있었으나 소리를 향한 확신으로 이를 극복하여 한길을 걸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랜 시간 지켜온 변함없는 목소리와 경기민요에 대한 깊은 태도를 풀어낸다.



프로그램

유산가	서울·경기지방에서 불려지던 12잡가 가운데 한 곡이다. 잡가는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불려졌던 민속 성악곡으로 19세기 무렵부터 성행했다고 한다. 19세기 이후의 경기잡가는 주로 사계축(지금의 서울 만리동과 청파동 일대)의 소리꾼들에 의해 전승되었으며, 현재 불려지는 ‘유산가’는 이때의 사계축 소리꾼 가운데 한 사람인 박춘경에 의해 정리된 것이라 한다.	소리	이춘희 강효주
금강산타령,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금강산타령은 금강산의 절경을 담은 곡으로 음악적인 면에서 경기 12잡가와 매우 비슷하며 민요와 잡가의 중간 형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유행했던 청춘가는 서울·경기에서 많이 불렸던 노래의 모습을 하고 있고, 원곡은 <이팔청춘가(홀과수타령)>이다. 노래의 율격은 유지한 채 가사의 내용과 음악적 내용이 변하여 지금의 청춘가로 불리고 있다. 노랫가락과 창부타령은 원래 서울굿 무가에서 유래 하였으나, 조선 말기 이후 속가로 오늘날 경기민요를 대표하는 곡이 되었다.	장단 피리 장단	이민형 최경만 이민형
긴아리랑, 정선아리랑, 이별가	서정적인 멜로디와 긴 호흡이 특징인 긴아리랑은 넓은 음역대와 부르는 이의 기술을 요하는 곡이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정선지역 향토민요로 구불구불한 우리나라 동부 지역 산간 지대와 닮은 메나리 토리가 사용된다. 이별가는 일정한 장단이나 후렴구가 없이 이별에 관한 슬픔을 노래한 서울·경기지역 명창들이 부른 민요이다.	소리 피리	이춘희 최경만

출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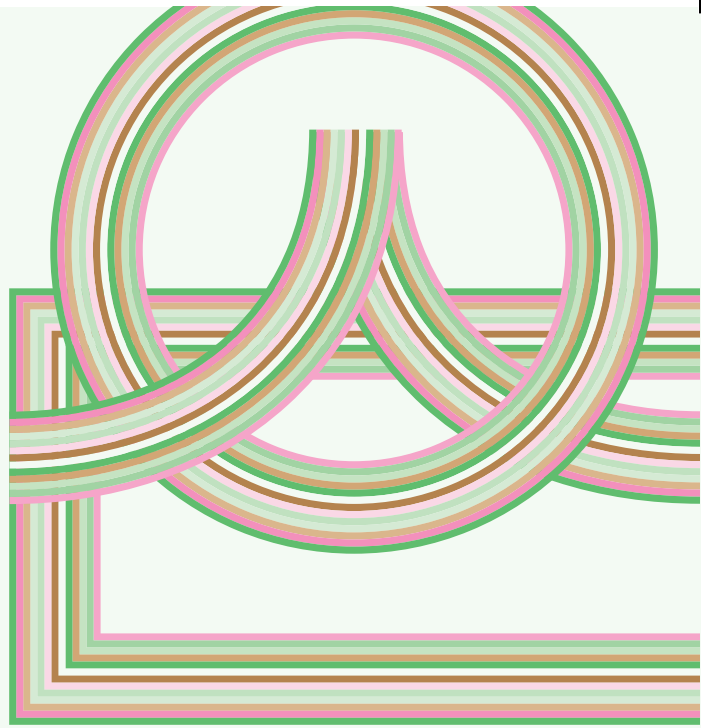
소리 | 강효주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이수자



피리 | 최경만 서울시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장단 | 이민형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깊이 품은 손끝을 소리에 얹고 사라질 추억에 밑줄 그으며

명인의 ‘추억’이 물길을 내고,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일소당음악회

서울돈화문국악당이 2021년에 첫선을 보인 ‘일소당음악회’는 명인들의 이야기와 추억이 음악과 함께 흐르는 공연이다.

2022년에 시작되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일소당음악회에는 예인들의 ‘연주’와 대화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함께 한다. 2022년 최충웅(가야금), 김영길(아쟁), 김무길(거문고), 김영기(정가), 한세현(피리), 원장현(대금)의 무대를 시작으로, 2023년 이동규(정가), 최경만(피리·태평소), 김광숙(서도소리), 김청만(고법), 2024년 김경배(정가), 유지숙(서도소리), 지성자(가야금), 채상묵(무용), 2025년 동희스님(범패), 김영숙(무용), 김수연(판소리), 이수자(굿), 그리고 2026년 이태백(아쟁), 문재숙(가야금), 이재화(거문고), 이춘희(민요)의 무대가 펼쳐진다.

음악과 춤이 흐른 곳, 일소당

일소당음악회는 원래 종로에 스며 있는 우리 음악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소당(佛韶堂)은 창덕궁 인근에 있었던 국악 공간으로, 이제는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진 곳이다. 지금의 서울돈화문국악당 옆에는 삼환빌딩이 있는데, 일소당이 있던 자리다.

일소당은 과거 이왕직아악부의 하나였다. 역사에 이왕직아악부는 조선 궁중음악을 보존·교육하던 기관으로 기록되지만, 한편 아픈 역사도 스며 있다. ‘이왕직’李王職의 이씨는 조선 왕실의 성인 전주 이씨를 지칭하고, 왕포은 일본의 왕실봉작제의 작위명을, 직궐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관을 의미한다. 일제는 국권 침탈 후 조선 왕족을 관리하는 이왕직을 천황 이하 궁내성 산하 기관으로 두었다. 한 나라를 이끌던 왕족의 역사는 천황 밑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왕실의 음악을 관장하던 장악원(掌樂院)도 1911년 이후 아악대(1925년 아악부로 개칭)라는 기관으로 격하된다.

당시 어린 아악부원들이 악기를 들고 매일 출퇴근했던 이왕직아악부는 오늘날 현대빌딩(종로구 계동)에서 비원 쪽으로 가는 길 오른쪽에 있었다. 사람들은 이왕직아악부를 ‘일소당’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해방 후 한국전쟁기인 1951년에 피난지 부산에서 개원한 국립국악원은 이왕직아악부를 전신으로 삼았다. 1953년 서울로 돌아온 국립국악원은 종로 운니동 비원 앞에 자리 잡았다. 그 안에 일소당이 있었다. 일반인들을 위한 월례국악강습회나 국악감상회가 열리기도 했다. 춤을 뜻하는 일궐, 풍류를 일컫는 소궐처럼, 일소당(佛韶堂)에는 전통춤과 음악이 흘렀다.

서한범(전 단국대 국악과 교수)의 증언에 의하면 ‘일소당’에는 여러 음악과 이야기가 흘렀다고 한다. 단골 프로그램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첫 곡으로 ‘보허자’나 ‘수제천’ 같은 궁중음악이 오르면, ‘춘앵무’나 ‘무고’ 같은 궁중무용이 이어지고, 가곡이나 가사·시조 같은 성악곡이 소개되었다고 한다. 오늘날 ‘정악’으로 분류하는 음악들이다. 그러고 나면 민속악 예인들이 산조, 판소리, 민요 등을 들려주었다고도 한다.

명인의 추억을 부르는 호출부호, ‘일소당’

일소당음악회에 출연한 명인 명창들의 기억력은 맑았다. 그들이 일소당에서 직접 무엇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소당을 비롯한 종로는 그들이 꿈을 키운 터전이자, 예술의 핏줄과 힘줄을 키우던 곳이었다. 대한민국 국악사궐을 살펴보면

예인들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했던 ‘종로의 국악사^학’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일소당음악회를 통해 많은 명인의 기억과 추억을 끌어올렸다. 최충웅은 일소당을 품고 있던 국악사양성소에서의 추억을, 이동규는 당대 최고의 객이었던 부친 이병성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김무길·최경만·김광숙은 일소당 인근에 있던 국악예술학교(현 국립전통예술고)에서의 학창 시절을 관객들과 나눴다. 김영길은 박종선을, 김영기는 국악사양성소에 재직하던 아버지 김용의 추억을, 원장현은 박귀희 명창이 운영하던 운당여관에서 추억을, 한세현은 배고프던 국악예술가들이 종로 일대의 요정에서 민속음악의 명맥을 유지해나가던 일화를, 김경만은 종로에서 만난 명인명창들의 자태를 회고의 주머니에서 꺼냈다. 김경배는 종로에 거주했던 김월하 명인과의 추억을 지금도 안고 살며 종로구에 위치한 월하문화재단에 매일 같이 출근한다.

해를 거듭하면서 일소당음악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무엇보다 일소당과 종로에서의 추억을 품은 명인들이나 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일소당음악회는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품고 있는 근·현대사의 기억을 나누는 상징적인 기록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일소당에서의 추억이나, 종로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어도, 한국의 예술과 오랜 시간과 함께 해온 그들만의 ‘기억’과 ‘음악’을 나누는 자리로 의미적인 확장을 시도하며 매년 초에 열리고 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기억되어야 할 명인들의 추억

2026년 일소당음악회에는 네 명의 예인이 함께 하여, 예술과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2025년에 범패(동희스님)-일무(김영숙)-굿(이수자)을 통해 종교 문화와 만난 전통예술의 미학을 들여다보고, 판소리(김수연)로 흥을 돋우었다면, 2026년은 아쟁(이태백)-가야금(문재숙)-거문고(이재화)로 대변되는 현^현악기의 세계를 만나고, 민요(이춘희)와 함께 신년(설날)을 열어보는 시간이다.

2월 4일은 ‘우리 음악의 전반을 아우른 종합 예인’ 이태백의 무대이다. 박종선·김일구의 가르침 아래 전주대사습놀이 기악부문 장원, 해남전국고수대회 명고수부 대상, 전국고수대회 대명고부 대상 등 굵직한 성과를 거쳤고, 목원대 교수로서 연주와 교육을 함께 이어왔다.

이번 무대는 이태백의 ‘예술 인생 60주년’을 맞아 마련되었다. 과거의 전통예술인은 가^歌·무^舞·악^樂을 일체화했고, 여러 악기와 음악의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으나, 오늘날 주전공과 분과주의가 생기며 1인 1역으로 그 역할과 경계를 횡단하는 에너지가 축소되었다. 하지만 이태백은 이러한 전승 체계에서 벗어나 아쟁뿐 아니라 고법·진도씻김굿·판소리까지 두루 이수하며 ‘한 사람의 예술이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근대화 속에서 잃어버린,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전통예술인의 ‘종합성’과 ‘총체성’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2월 7일은 가야금 연주로 삶의 시간을 쌓아온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의 이야기와 음악이 흐른다. 가야금을 전공하던 언니의 영향으로 시작된 인연이 취미를 넘어 삶의 방향이 되었고, 대학 3학년 때 만난 김죽파 명인을 17년간 스승으로 모시며 김죽파류 산조·풍류·병창을 온전히 전수받은 그녀다. 스승의 유산을 손 끝뿐만 아니라 여러 기록으로 쌓아온 그녀의 이야기와 함께, 어떤 순간에 소리가 깊어졌으며, 무엇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삶과 예술이 함께 해온 시간의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2월 11일은 거문고와 함께 한길을 걸어온 예인 이재화와의 만남이다.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예능보유자인 그는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하며 이 길을 걸었다. 대금을 전공하다가, 고교 진학 후 남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노력으로 길을 넓고 단단히 다졌고, 그 결과 백낙준에서 한갑득으로 전승된 거문고산조의 정통을 단단히 잇고 있다. 현을 늘려 개량한 화현금 개발, 북한음악 연구를 통한 한민족의 음악적 뿌리 탐색, 추계예대 교수로 후학을 길러온 시간, 그리고 국악사양성소 시절에 기억하는 종로와 일소당에 관한 추억을 만나보는 시간이다.

2026년 일소당음악회의 마지막 무대이자, 설날(17일)을 앞둔 2월 14일 무대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이춘희가 장식한다. 경기민요의 교과서라 불릴 만큼 확고한 기준을 세워 온 명창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을까?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만난 소리가 마음을 움직였고, 집안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의 길로 접어들었던 그녀는 열일곱에 본격적으로 소리의 길로 들어섰다. 이창배 명인에게서 기틀을 다졌고, 안비취 명인을 만나 소리의 깊이를 더하며 자신만의 걸을 단단히 세웠지만,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도 소리를 향한 열정과 긴장은 잠시 놓은 적이 없다. 시대와 사람, 변화를 담아온 ‘소리의 큰 그릇’에 담긴 추억과 회고를 통해 우리는 어느덧 ‘노래가 되어버린 한 여인의 삶과 시간’을 만나게 된다.

2026년 일소당음악회는 네 명의 예인이 각자의 삶에서 걸어 올린 예술을 한자리에 펼쳐 보인다. 아쟁·가야금·거문고가 전통의 뼈대를 세우고, 경기민요가 설날의 숨결을 보태며 4개의 무대는 한 편의 세시^{歲時}이야기로 완성된다. 전통예술이 품어온 종합성의 귀환(이태백), 스승에 대한 기록과 전승의 품(문재숙), 정통과 확장의 질문(이재화), 삶을 노래로 건넨 시간(이춘희). 그들의 공연 무대는 2026년 새해를 여는 인사이자, 기록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기억으로 메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현민 | 일소당음악회 예술감독·음악평론가

(주)컬처브릿지 서울남산·돈화문국악당

대표이사 김나영

사업부분 총괄 김영신

(돈화문국악당 실장겸직)

콘텐츠사업팀

팀장 김수임

담당PD 김수연

팀원 서로사 이도요

공연사업팀

과장 한윤진

팀원 이지은 이해인 서지민 홍지은

무대기술팀

팀장 도성종

과장(무대) 손지영

무대 이세영

조명 이성현 박정은

음향 김승왕 강한결

경영기획팀

팀장 김효진

팀원 김종현 이호재 김서연 박지민

